

문화

베니스비엔날레가 주목한 세 사람 “믿기지 않네요”

공연·전시

조선범기자 2017-04-18 [기자가 쓴기사 더보기](#)

김완·심향·손파 작가, 지역 최초로 특별전 초대받아



김완·심향·손파 작가(왼쪽부터)가 지역 출신 최초로 제57회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퍼스널 스트럭처’에 초대받았다.

대구·경북 출신의 작가 3명이 제57회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인 ‘퍼스널 스트럭처(Personal Structures·개인적인 구축)-시간, 공간, 존재’에 초대받았다. 김완, 심향, 손파 작가가 주인공이다. 대구·경북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세계 최고 권위의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에 초대받기는 처음이다.

네덜란드의 비영리재단인 글로벌아트페어재단(GAAF)과 유러피언컬처센터의 주최로 오는 5월13일부터 11월26일까지 열리는 ‘퍼스널 스트럭처’는 2017베니스비엔날레 국가관과 별도로 마련되는 특별전이다. 이 전시에 초대받은 한국 작가로는 2009년 김아타, 2011년 이우환·세오, 2015년 남홍, 차수진, 한호, 이명일, 이이남, 박기웅이 있다.

김완, 심향, 손파 작가는 청도군 이서면에 위치한 갤러리 팔조와 인연을 맺고 있다. 김완, 심향 작가는 갤러리 팔조의 전속 작가이고 손파 작가는 소속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갤러리 팔조의 김중희 대표는 “작가들의 작품을 눈여겨본 주최 측 큐레이터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다. 작가들은 대구·경북에서 활동하지만, 해외 전시는 물론 해외 아트페어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작곡가 출신의 김중희 대표는 심향 작가와 손파 작가의 전시 공간에서 퍼포먼스도 펼칠 예정이다.

김완

골판지를 거칠게 자른 후 색 입혀
상처 치유하고 승화시킨다는 의미

심향

바늘에 실을 꿰어 한지에 엮는 방식
소통과 존재의 가치를 별로 형상화

손파

한방침 수백만개로 만든 설치작품

“공포와 치유의 과정 말하려는 것”

특별전에 초대받은 작가들은 모두 독특한 재료를 사용해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김완 작가는 골판지, 손파 작가는 한방용 침을 사용한다. 심향 작가는 한지에 실로 레이어(층)를 만든다.

김완 작가는 “처음에는 안 믿어졌다. 지금은 도전의식이 생겼다. 특별전에 참여해 당당하게 내 작품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영남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김완 작가는 칼로 골판지를 거칠게 자른 다음 색을 입힌다. 스스로를 치유하고, 상처를 승화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에는 ‘빛과 색을 만지다’라는 제목의 평면작품 4점을 출품한다. 현재 갤러리 팔조에서 개인전도 진행하고 있다.



김완 작

김완 작가는 “나만의 언어, 나만의 감성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골판지로 작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다 보니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 골판지를 이용해 입체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계명대에서 서예를 전공한 심향 작가는 “엄청난 영광이지만, 책임감도 느껴진다”고 털어냈다. 먹으로 작업하다 실을 발견했다. 한지에 실을 붙이는 게 아니라 바늘에 꿰어서 엮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실이 물감이고, 바늘이 붓이다. 특별전 참여를 위해 의령의 한지장인으로부터 로마문화재 복원에 사용되는 한지를 구입했다.

존재의 가치를 별(star)로 형상화한 ‘스타필드’라는 제목의 평면작품 3점을 출품한다.



심향 작

심향 작가는 “존재의 관계성인 소통과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의 소중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의 주제와 잘 들어맞아 작업이 어렵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파 작



손파 작가는 칠곡 한센인 마을의 폐교에서 작업한다. 손파는 예명이다. 고정관념과 스스로를 깨트리겠다는 의미로 파(破)를 썼다.

한방침으로 설치 작품을 만든다. 베니스비엔날레에 의자, 치미, 총탄을 출품했다. 의자라는 작품에 한방침이 무려 300만개나 사용됐다. 재료 값만 6천만원이 넘는다. 무게가 300kg에 달한다. 손파 작가는 “침은 공포와 치유의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인간이 느끼는 공포를 작품으로 연결해 치유의 과정을 설명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고통과 치유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한방침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이다.

경북대 미술과와 계명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을 전공한

손파 작가는 “비엔날레 특별전 참가는 좋은 기회이고, 기쁜 일이지만 목매고 싶지는 않다. 매일매일 작은 것을 해결하는 게 인생이다. 즐기면서 작업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Copyrights © 영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